Eugene's FICC Upd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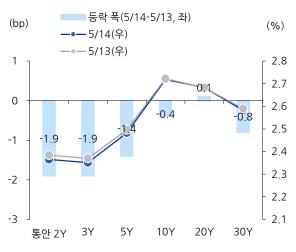




Fixed Income 김지나 02)368-6149 i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 02)368-6138 i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 02)368-6177 dbwogur170@ eugenefn.com

Fixed Income (단위: %,bp, 특							
		5/14일	1D	1W	YTD		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351%	-1.9	9.8	-24.5		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718%	-0.4	11.5	-13.7		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36.7	35.2	35.0	25.9		
	3년 국채 선물(KTB)	107.55	5.0	-35.0	90.0		
	10년 국채선물(LKTB)	119.86	11.0	-110.0	294.0	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056%	5.4	27.8	-18.4		
	미국채 10년물	4.539%	7.1	26.9	-3.3		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48.3	46.6	49.1	33.3		
	독일국채 10년물	2.696%	1.9	22.5	33.2		
	호주국채 10년물	4.429%	4.9	20.4	6.1		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미 4월 CPI 소화하며 단기물 중심 강세 출발. 오전 중 외국인 순매도로 잠시 약세 보이기도 했으나, 국내 기 관 매수세 강해지며 금세 강세 전환.
- KDI, 건설업 부진과 통상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국내 성장률을 0.8%로 제시한 점도 금리 하락 요인으 로 작용. 이는 기존 전망치인 1.6%의 절반 수준.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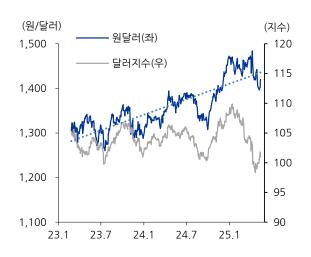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
- 미 중 무역합의가 촉발한 연준 금리 인하 베팅의 되돌 림이 나타남. 이날 금리선물시장, 연내 인하 폭을 전주 마지막 거래일 대비 17bp 가량 축소 반영.
- 미 IG 회사채 발행 활황도 부담으로 작용. 지난 12일 11곳, 13일 7곳에 이어 8개 기업이 자금조달에 나선 영향에 금주 발행 예상액은 이미 시장 예상치를 상회.
- 한편 연준 부의장, 향후 인플레 경로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강조. 여태까지 발표된 관세 인상이 지속될 시 디스 인플레 경로 방해 및 일시적 물가 상승을 전망.



FX & Commodity (Etql: %, \$)							
		5/14일	1D	1W	YTD		
한율	원/달러	1,420.20	0.3%	1.6%	-3.6%		
	달러지수	101.07	0.1%	1.2%	-6.8%		
	달러/유로	1.117	-0.1%	-1.1%	7.9%		
	위안/달러(역외)	7,21	0.2%	-0.2%	-1.7%		
	엔/달러	146.73	-0.5%	2.0%	-6.6%		
	달러/파운드	1.326	-0.3%	-0.2%	6.0%		
	헤알/달러	5.64	0.5%	-1.9%	-8.8%		
상품	WTI 근월물(\$)	63,15	-0.8%	8.7%	-11.9%		
	금 현물(\$)	3,177.43	-2.2%	-5.6%	21.1%		
	구리 3개월물(\$)	9,592.00	-0.1%	1.8%	9.4%		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4.20원 상승한 1,420.2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04.50원 마감.
- 간밤 CPI 예상치 하회로 달러는 약세. 달러-원은 전거래일 대비 상승 출발했으나, 보합권에서 등락하다 오전중 1,408원대로 급락.
- 그러나 이후 위안화가 당국의 절상 고시에도 가파른 약 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이에 연동. 대만 달러 매도에 따 른 언와인딩 매수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.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아시아 통화 절상 우려 속에 하락.
- 전일 한국 금융시장 마감 후 기재부에서 지난 5월 초 밀라노에서 미국 재무부와 환율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. '통화 절상' 논의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 었으나, 해당 발언 이후 원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 일 제히 급등.
- 그러나 간밤 미국 측이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환율 조정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달러는 급반등. 한 때 1,380원대까지 하락했던 달러-원도 다시 1,400원대로 올라섰음.
- 금일 미국 생산자물가 및 소매판매 발표 예정.